


Literature passed
out at McIntyre's
meeting —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에큐메니칼 研究叢書 第一號

朴
炳
勳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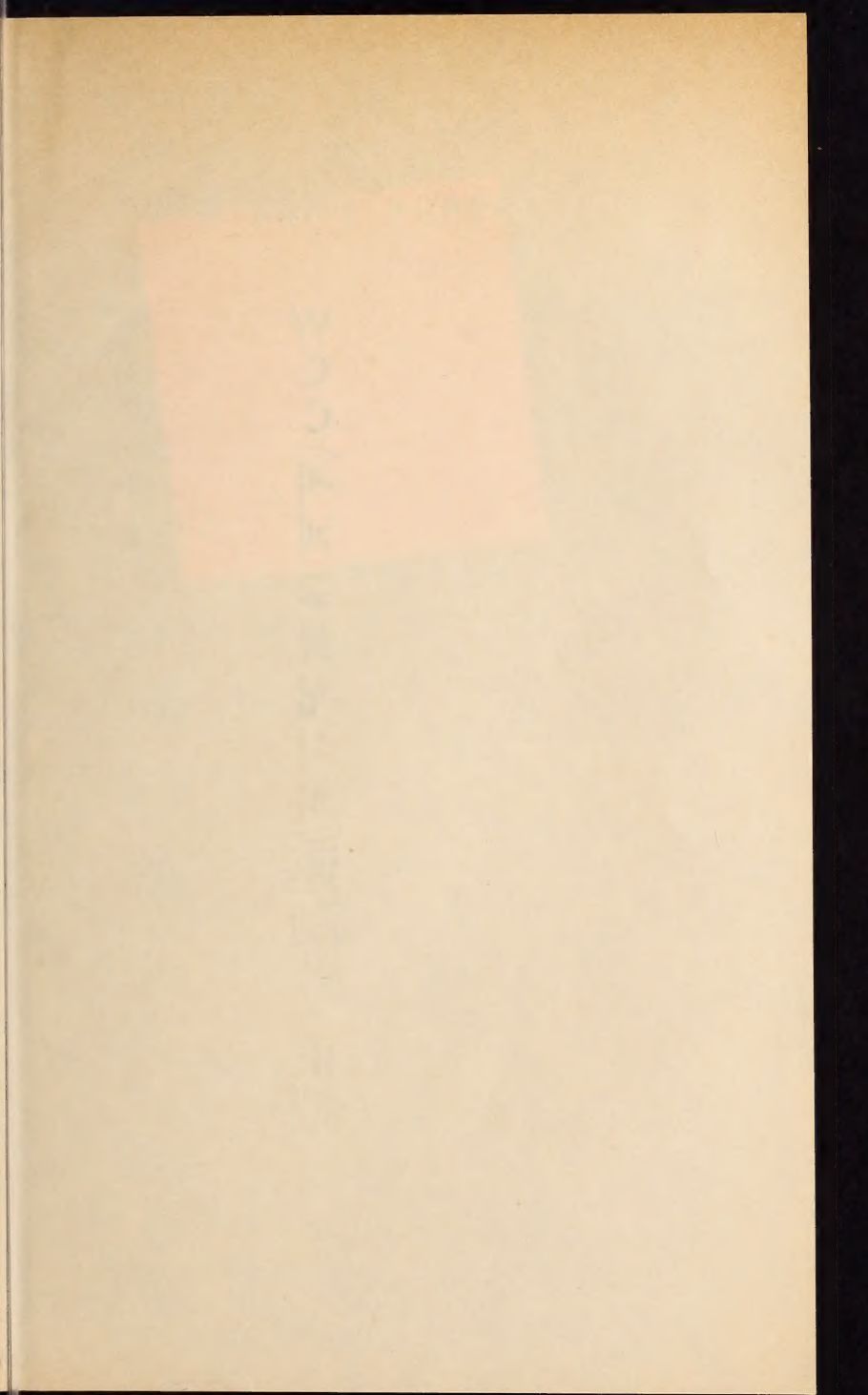
W
C
C
(세
계
교
회
협
의
회)
運
動
의
正
體

WCC運動의 正體

WCC 運動이 우리韓國教會의 關心事로된지 不過 몇해요 이것의內容이 무엇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이들이 우리教界에 아직도 많이있다. 그러나 國內에 WCC 運動指揮者들의 過히 熾急한活動은 教會의傳統의 福音主義信仰을 貴重히 여기는 敎役者들과 信徒들의 神經을 몹시 刺戟하여 심한不安과 憂慮를 가지게한다. 그들은 機會를보아 教會固有의 信仰的 傳統을 뒤집어엎고 自由主義의 新舞台를 設置하려는 意圖를 품어왔다는것이 露骨化하게되즉 正統 信仰을 保守하려는 多數의 教會指導者와 信徒들은 다시 더참을수없이 된것이다. 教會의 靈 的生命을 保全하기 爲해서는 이危險한 WCC 運動과 綱緣하여야 된다는 呼聲은 갑작이 높 아진다. 이運動의 危險性을 나타내는 特性은 여러가지로 學論될수있으나 그중에 가장 큰것 은 세가지다. 卽 이 運動은 容共의이며 單一教會를 目的하는것이며 神學的 自由主義에 基 礎를 둔다는것이다. 이 運動의 세가지 特性을 各各學論하여 批評하므로 이運動의正體를 들어내려는 것이 이「콤파레트」의 試圖하는 바다.

第一章 WCC(세계교회협의회)가 무엇이다

화제 WCC가 용공이다라는 이 말은 확실히 조심성 있어야하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교계에는 불론 우리 한국인 경우 사회적으로도 큰과문을 아니던 걸수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분이 "WCC를 왜 용공이나고하는가 용공이라고하는가 그가 공산주의자다"라고 통박을 했다고 듣고있다. 이로미루어 볼때 나의 이말이 얼마나한 론평



그런류의 부서를 마련해 두고 이문제를 부절이 연구토론 하고 있기때문이라 하겠다. 다음
그들 위원들이 한일을 살펴보기로 하자. "암스텔담회" 인경우 전체를 배가지 부분으로 놓
고 그중에 제삼부를 교회와 사회와의 혼란 이라는 명목아래 전기 모든 문제를 취급케하
는중에 제네아가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라는 항목을 세웠고 전기 CC-A 위원은 물론
그밖에 여기흥미를 가진 모이는 인사들과 이문제를 정상에 올려놓고 연구 토론해서 종말
에 그회의에 제출 채택할 보고서를 꾸며내는 형식으로 한것이다.

그때 이제삼부 제네아 제네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그대략의 내
용을 보면 고미국전 국무장관 "델레즈" 씨가 변천하는 세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책임은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독립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공산주의를 받을수없다. 고 말한
데 대해서 체코에서는 대표 로마트카 박사는 공산주의는 사도시대 부터 수도원 시대를
통하여 종교 개혁시대와 자유인문주의 시대에 이르기 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가지고있는
사회적 원동력을 대표한다는 말로 응수 했든것이다.

이 양거두의 부공 의연설을 중심으로 여러날동안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맺어진 그결
론을 본다면 첫째 그들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갈등을 다음 네가지 항목으로 내세웠다.
① 자본주의는 인간의 필수인 경제를 첫과업으로하여 그경제기관에 비하여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에 종속하는 경향이 있다. ② 자본주의는 심각한 불평을 자아
내는 경향이있다. ③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데에 성공의 지대한 중점을 두기때문에서 방국가
가 기독교 배경에도 불타하고 그들 국가에 유물론의 실제 형태를 발전시켰다. ④ 자본
주의는 그나라 인민에게 집단실적과 같은 사회적 재산을 가져다준다. 이상 이네가지에는

을 받을지 혹은 육설의 세태까지 받을지를 모르는 말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어서 나는 이 글을 아니발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다. 하나의 한국사람인고로해서 이렇게 입이열어지는 것이기도하다. 필자의 심중에 한국교회의 지도자라는 자아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로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 WCC는 단일 교회를 지향한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는 시시비비(是是非非)와 함께 오늘 교계의 당면한 과제로서 그 흑백을 바로 깨어야 할 경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교회앞에 바로가르 키고져 하는 사명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이문제는 노회나 총회의 지도자들 사이에만의 시비로만 국한 되어있지 아니하다. 작년 총회때에 "WCC 탈퇴"의 건의가 총회에 제출되었고 그뒤 오늘까지 이문제의 시비는 최고조에 달하고 말았다.

"대체 어느것이 옳소!" 하는 백만 신도의 질문에 따른 말을 답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같이 말하는것 뿐이다. 눈막잡고 숨은 보따리를 퍼놓는것이 나의 이는 문의 목적이라 하고 싶다.

1. WCC 제 1회 (암스테르담 회의) 경과

이문제의 실마리를 풀려면 우리는 먼저 기독교 지도자들이 봉인 이 WCC가 어떤 연유로 문제의 공산주의 문제를 순위하게 되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WCC 공산주의 문제를 말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면 첫째 WCC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인사들이 교회대표라는 미명하에 다수의 사람들이 회의에 옴으로 그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하나의 사실과 둘째 바로 이 WCC가 낳은 CCA 즉 국제문제교회위원회 (二十七국대표, 四五명위원)에서 회의때 마다 이런 문제를 취급케 되어있고 WCC 기구내에다 뼈것이

때로 말하면 一九四八년부터 적(赤)의 손이 우리들 사이에 무난히 들어올수 있는 문이 열린셈이다.

二. 제 一 회(에반스톤 회의)의 경과

위에서 말한바 있지만 때로 말하면 一九三四년八月 제 一 회 WCC(암스텔담)대회후 六년을 경과한때다. 전세계 인류는 누구든지 한국의 六, 二五 공산적도의 남침, 벨트담의 호지명 공산군의 반란의 경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무엇인가를 알게된 때라고 본다. 진정한 기독교이면 설치의 흥분을 가슴에 아니 가질수 없는 그때 이 문제의 WCC 제 二 회는 자유진영의 쟁터인 미국 한부판에 놓이게 된것이다. 암스텔담회의에서 명시 된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상호 합할수없다는 五대 이유를 내걸고서 세 공산두목을 중앙위원으로모시고 五十三명 북은 투사들을 정회원으로해서 물인 이문제의 WCC 제 二 회(에반스톤 회의)는 말 그대로 용공이였는가 아니였는가? 이는 전인류의 관심이 아닐수 없었다.

이 공산주의에 관한 문제는 에반스톤회의 때인 경우 제 三 부 사회문제분과회 제 二 항 교회는 책임 사회형성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입장에도 공산주의 입장에도 설수없다는 문제에 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때 ① 공산권내 교회의 세속주의 ② 유물론과 유신론과의 상 위문제등등으로써 제출되었고, 제 四 부 국제문제 분과회에서는 평화의 길로서 첫째 해무기 금지와 군비축소 그셋째에 가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공존문제등으로 토의 되었는것이였다. 이 여러부문에있어서 저들 공산지도자들의 논설을 살피기로한다.

먼저 놀드박사의 연설의 한토막 『세계의 평화, 정의, 자유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북음의 지상명령이다.』 고로 제 三 차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복잡한 二대진영의 공존

공산주의를 예찬하는 뜻은 없다. 그러나 되어진 말도서 그에 서방 즉 자유주의 국가들의 그것들 기독교와 분리 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 문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바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합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그것 자체가 ① 공산주의는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을 약속한다.

② 새로운 질서의 창설자와 같은 그 역사의 효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사람들은 죄악으로 부터 벗어나서 이것이 모—든 인간의 특권 이라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모순되도 않는다. 신념 ③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섬길 의무를 가진 한인성으로 보는 기독교의 견해와 모순되는 그들의 유물론적 정명논적 교도

④ 그들의 반대자를 취급하는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방법 ⑤ 단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독점적이고도 절대적인 충성을 그 당원에게 요구하는 당의 태도와 모—든 생활 상태를 지배하는 공산주의 독재의 위압적 정책 이상 다섯가지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다음 결론으로서 보고서 제2항에 보면 『교회의 임무는 민주주의에나 공산주의에 편들지 아니하고 종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서 WCC 암스텔담 회의의인 경우 그들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앉아서 사권 바있으나 기독교인 경우 반대 아니할 수 없는 바라고 밝힌 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WCC 제1회 암스텔담 회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은 말하자면 하나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말할 하면 앞으로 일할 전 세계 교회에 공산주의가 침투할 길을 막은 셈이 되는 것이다 이 WCC 아니면 그들 위성국 사람들이 철의 장막을 넘어 자유진영의 땅에 울리었고 WC C 아니면 이념을 달리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 WCC

반스톤 회의)인 경우 오히려 공산주의에 찬사를 보내었고 전에 없던 평화공존이라는 문제까지 출현되어서 마치 WCC를 공산선전 연단화 시킨 것이 아닌가? 맘대로 직거리고 맘대로 결의하고 하는중에 WCC 제一回(암스텔담회의)때 결의한 공산주의 불응답 五대의 결을 폐기해버렸고 오히려 전세계 교회를 붉은물로 드러놓은 것이 아닌가? 그들의 활동은 이에서 끝인 것이 아니다.

WCC본부 중앙사무국 안에 제一部 제二과 제三계에 공산권내의 교회의 사회문제 세손을 설치 해놓고 에반스톤회의때 부르짖는 평화공존, 핵무기폐기를 되풀이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WCC 제二회 에반스톤회의후 五년되는 오늘은 평화공존보다 이제서 대답하게 충공승인문제를 제안 하고야마는 현실이 아닌가? 다음 WCC 제三회의 一九六〇年八月회의 때 북한괴뢰 동독 북 베트남 등의 승인문제가 아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러므로 해서 또한번 확실히 명언해둔다. WCC는 용공이라고!

三、WCC의 구성

WCC회원 국가 및 대표자들의 성분에서 WCC가 용공이라할수 있다는 것을 말해보기로 한다. 이 WCC를 무조건 예찬하고 충성을 맹서한 이들의 말이나 글에 의하면 WCC 제一回(암스텔담회의)때에 국가별로 五四개국 교파별 一四七 회원수 三五一名 이같이 말하고 제二회(에반스톤회의)때에는 국가별 四十八개국 교파별 一六三 회원수 一,〇〇〇명 넘었다고 자랑한다. 나는 이 숫자를 부인하려고 아니한다. 문제는 이들이 수로서 자랑하는 그 四十八개국 중에 몇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의 문제다. 여기서 나는 몇이라고 아니한다. 단지 『모스코바』를 수도로한 소비에트까지 이 WCC의 회원국임을 밝히고 三五一名 또는 一、

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는 말함으로써 스타린의 공산주의의 평화공세의 표어인 공존을 강조한 셈이고 앞에 말한바도 있지만 미국 『푸린스톤신학교』 전교장이었던 쏘 마카이 박사 는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와 꼭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며 혹은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서슴치 않고 말했다. 이연설은 『에반스톤』 본회의에서 공존을 반대하는 회원의 연설을 반박할 때에 한 말이었고 WCC 중앙위원의 한 사람 공산주의의 거부인 후로마트카의 연설 『서방문명은 멸망상태에 있으며 그 자체를 보존하는데 있어서나 또는 무산대중의 강한 파동에 성공적 대항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확신을 나는 얻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전통 으로부터 성장해온 본질적으로 전설적인 운동이며 결국에 가서 모—든 국가가 이를 받아드릴 것이다』라고 정말 공산주의 정부의 공노운장을 받을 자격있는자의 연설의 기세가 있는 말인가 싶다. 그리고 그 이름은 미상하나 어떤 공존추창자는 말하기를 평화적 공존에 대한 반대의 유일한 방법은 전쟁인데 그리스도 교인은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을 옹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로 공존 이외에 다른 도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에 반스톤 회의는 저들 공산주의자의 선전장 과도같이 스타린의 만드러낸 공산주의 신선 공세의 표어인 공존 이라는 말이 연발되고 핵무기 폐기 냉전지양등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근본 유물론이 제임이라는 공산주의 선전이 꼬리를 불고 나온것이 였다고들 말한다. 그때 진실한 신앙가들의 반론도 큰바 있었지만 이에 대한 우리대표 명신홍 박사의 연설이 에반스톤회의 보고서 一二九페이지에 실여 있음으로서 우리 한국은 강력한 공산주의 반대 국가 교회인 것이 천하에 공개된 것을 말하고 나는 이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 즉 이래도 WCC가 옹공이다』라는 말에 이의(異議)가 있겠는가? 이 一九五四年 WCC 제二회(에

그는 오늘 현재 구라파에선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대표적 대변자임은 세계가 디 아는 사실이고 공산 정부로 부터 공산주의 평화운동에 공노가 있다고 해서 공노 혼장을 받았고 모스크바의 세계평화회의에는 언제나지 대표로 가는 사람이 요官푸라크에서 코메니우스 신학 교수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죄목으로 다-잡혀갈때에 혼자 남아 활보한 말하자면 부한 강양우과 같은 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밖에도 또 문제의 공산국가 대표들의 국가별로 기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체코의 빅터하척크박사 잔까바다 감독 잔미 칼호 박사 항가리의 라즐노데즈리감독 라오스 배토감독 알버트 부레즈기 라즐노파포 소비에트의 에룬스트 소모에스 키-푸만 티-터 퇴이멘 마제르 버크워드 로요텐베르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WCC에는 수다한 공산주의 국가의 대표들이 누부시는 활약을 하고있는데 지면관계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중에 항가리의 피-터 감독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는 월 四〇〇불식 공산정치자금을 받고 밀정을 하되 루히 진실하려 는 북음주의자들을 밀고해주는 말하자면 일제때 친일자들이 동역자들을 밀고해주는 것 같이 하는자 인것은 너무나 유명하다고 아니 할수 없다.

필자는 WCC안에 활약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논함에 있어서 전기 미국의 옥스남 감독을 제외할수는 없다. 그는 WCC 제-회(암스텔담회의)때 부의장에 뽑힌 한사람으로서 WCC 제-회 에반스톤회의때에 개최연설을 하기까지의 WCC에서도 들없는 지도자라고 하나 그녀나 미국부성에서 그를 반미행위자 즉 공산주의혐의로 구속의 대상이 되었던것은 감출태야 감출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독자의 심안에 반영되는 WCC는 어떤성격의 회라고 결론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반문해보고 싶기도하다.

○○○명 이상이라하는 그중에는 많은 『소비에트』의 대표를 위시해서 모—든 위성국 대표가 무려 五十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WCC에는 결코 이들만이 나의 논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공산국가 대표아닌 많은 수의 회원들이 그스도의 사랑이라고해서 공산주의자를 특히 환영하고 그들의 언행이나가 제안인 경우 놀랄정도로 협력하는 이들이 적지 아니한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그 웃듬는 이를 여기에 말해본다. 첫째 WCC의 기록을보면 모씨가 기록공보에 예찬한 미국 감리교 三천감독중에 제일가는 우즈남감독도 거기 한목끼였고 그다음 미국 제일 유명한 연합장노교 신학교장으로 있던 막카이 박사가 곧 잘 거들었으며 기록 교사회원리의 권위자라고 일드는 유니온 신학교 존베빗박사 니버박사 올드햄 박사등을 위시해서 짐은사람중에는 벨즈박사 도마스 박사 그리고 구라파에서온 우일윈 박사 불니스부인 팔트진박사 등이었고 우리들의 인상에 남아있는 그 에빌 부르너박사는 신학에도 유명한지만 이부분의 활동도 눈부신바 있었던 것이다.

WCC의 중앙위원회라하면 상무위원들로서 회의를 그들이놓고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비롯해서 맡아지면 WCC를 좌우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임은 말할나위도 없는 그들의 찬사를 그대로 옮기면 위대한 지도자들이다. 이들 중앙위원중에도 첫째 체크대표 로마트카박사와 랑가리의 나즐노파트가 있는데 이두사람은 WCC 처음부터 중앙위원이었고 폴렌즈 카알코 들나는 에반스톤 회의후에 새로 등용된 중앙위원이며 폴렌드의 CJ펠트진 박사는 선거 제三부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이들 네사람을 일일이 들어 그행사들을 수는없다. 전기 체크의 로마트카 하나만을 이야기해 본다.

스타린의 조작한 공산주의 평화공세의 표어가 아니고 무엇인가? WCC 제1회 암스텔담 회의에서 부터 제2회 에반스톤회의에서 수다한 인사들이 귀가 아프도록 되풀이한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공산주의와의 냉정을 지양하자』 했으면 용공이고 증공을 승인하고 UN에 가입시키라』 고 전의했으면 용공이 겠지 또 다른 무슨말이 있느냐 말이다. 이문제의 회의를 주도한 바로 위에 언급한바 있는 WCC 지도자의 하나인 쾨넬 박사와 전미국 UN대표 에네스터 그로스 등 이라고한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WCC 제2회(에반스톤)총회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한 오늘 WCC의 지도자들에 의해서된 이회가 이정도 노골적이고 용공의 심곡에 드러섰다면 내년 어데서 열릴 제3회 WCC 총회때에 될일을 상상해보라 미국공산당 주간지 씨터데이 이브닝 포스터 사설에 三천八백만의 신교도가 총공승인을 원했다는 기사를 상기해보라. 이얼마나 이적행동이던가? 여기서 이문제에 대한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산모인 미국 연합 장노교 총회의 되었을 말해보면 어떤 두 뇌회에서 이결정에 반대한 것을 총회에 전의서를 내었다는 것이다. 총회 현의부 에서는 그것을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현의부로서의 전의로서 문제의 클레브랜드의 그 결의가 잘되었다는 서류를내었는데 총회는 이두안을 놓고 많은 시간 동안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으로 위해서 기도나 합시다 하는것이 결정의 내용이란다. 이경우 미국 연합 장노교총회는 용공이나?

배공이나? 그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만 그러나 발표자의 할말은 없지않다 이것보아서 오늘미국 연합 장노교 총회는 짐작되어진다. 하는 말을 남기면 싫어서다.

결기 함바와 같이 그 중앙위원에 그 회장단에 부장발열에 그 회원들중에 공산주의자들이 빠져
있어야 있는데 왜 WCC를 공산주의 용납자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WCC를 『공산주의자라』
하면 지나치는 말일지 몰라도 WCC는 용공이다 라는데는 노—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한다.

四、 미국 WCC와 벨기에판인경야

총성스런 WCC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영도되는 미국NCC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회의의
결정이 오늘 二十세기의 재빠른 보도기관을 통해서 수삼일이 못되어 전세계에 발표된 바
이기때문에 이사진을 모르는이가 없다고 본다.

六백명이 넘는 미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작년十一月 二十一일부터 클레브덴드에서 모여서
무엇을 의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른나라 교회는 몰라도 미국교회를 모
교회로 모시는 한국교회인 경우 바로 알아야 한다고 본다. 먼저 그 회의의 결정된 바를 보
면 첫째 미국정부는 중공을 승인할것 둘째 UN은 중공을 가입시킬것 셋째, 국제공산주의
와의 냉전을 지양할것 넷째, 공산주의와의 평화공존과 협동을 해야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다. 이결의는 그 즉시로 참석자 六백여명의 서명을 거쳐 미국정부와 UN에게 제출되었고
온지구상에 발표가 된것이였다. 필자는 이에대한 우리한국NCC의 대응명서를 동경서 본바
있으나 그것을 시비하려는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문제를 밝히려고
하는것 뿐이다. 미국NCC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거나 배공하는거나의 문제이다. 누가 필자
에게 답해보라! 귀에말한 네가지 결정이 용공이 아니라고! 공산국가와의 공존과협조도
해야한다는 결정이 용공이 아니고 무엇인가?

WCCC가 용공이 아니고 무엇인고 이의(異議)가 있으면 필자에게 답하라.

WCCC가 용공단체라는 것을있게설명한 목적은 성경적인복음 진리에 입각하여 바른신앙을 지키며 전하려는 교회로서는 이런단체에 관제를 가지고 있을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爲함이다. 복음주의 신자들은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양립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의심하지않는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조물주하나님을 믿는데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변증법적인 유물론을 믿으며 무신론을 선전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반역하는 것이 죄악의 근원임을 믿는데 공산주의는 개인의 부가만약의 뿌리라고 본다. 기독교는 우주적 구제책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믿는데 공산주의는 세계 구제책으로 사회적 정치적 혁명을 주장한다. 기독교는 사랑과 회생의 봉사를 동료인류에 대한 의무로 장려하는데 공산주의는 무자비투쟁으로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에화하는 것을 농사로 삼는다. 기독교는 천국영생을 생의 최고 이상으로 삼는데 공산주의는 잔인한 전체주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무계급 지상사회를 최종목표로삼는다. 그런즉 모든 점에서 반대되는 사상과 행동을 취하는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더불어 타협하려는 종교 운동에 성경적복음 주의 신앙을 포기할수 없는 한국 교회가 가담할수 있는가?

第二章 WCCC는單一教會運動이다

一、教會合同運動은 이 WCCC 前身에서부터다

먼저 이 WCCC의 母體였던 國際會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歷史를 들쳐보면 WCCC가 話題의 敎命統一이라는 말은 一九四八年 암스텔담에서 처음 생겨난 WCCC부터가아니다. 十九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진다. 필자가 바로 이문제를 접한 때는 작년 十二月五日
이니 문제의 클레브렌드 회의 바로 七、八月 후이었다. 이결정 내용이 기독교 사회윤리학
교수되는 미인에 의해서 연구실에서 발표 토의한 바있는데 그때 내입에서는 나도 모르
게 WCC 지도자들이 이런 심거운 노릇을 하기때문에 우리나라국교회는 작년 총회때 WC
C를 탈퇴 하자는 소동이 났던게라! 고말해졌다.

교수되는 이의말 박목사님, WCC가 아니라 미국 NCC야요 라는것이였다. 여기에대한 필
자의 둘째말은 이렇게 해졌다. WCC가 NCC·NCC가 WCC이지 무슨다른점이있어요?
WCC의 지도자 쾨베넷트가 이회의지도 역할을 했으면 다—지 무슨 또 다른내용이 있어
요? 이말에 대한 그의말은 그렇게 이야기 할수도 있지만! 하는것으로 끝인바있다.
이야기는 다시 일본사람 아카가와 시가에라는 자에게로 옮긴다. 그가 바로 일본 기독교
단목사이면서 일본 공산당원이다. 필자는 여기서 이아카가와 자연인을 고발할려는 것이아니
다.

목사가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공산주의 선전 연설을 버것이해도 너 왜 그러느냐? 하
지아니하는 WCC예찬의 제—인자 일본기독교단을 말하려는 것이다. 신학생이 공산당 분부
에 출입해도 너왜그런곳에 가는거야? 할줄 모르는 일본 기독교단에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벗하는 그것을 책하는것뿐이다.

증공의 초청을 받고 다녀와서 보고강연하는 신학교 교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일본
기독교는 두말없이 용공이 였다고 단언한다. 이것이 WCC의 축소판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교회들의 이런대표들이 모여서 공산주의국가들의 대표를 불러 놓고 벗하는

「教會再統一은 實際上 便宜上에서 一致를 創造하려는 것이 아니라 教會의 本質의 統一性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것이었다. 그들指導者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主唱했음을 생각할 때 위의 말처럼 教會合同이라는 問題는 一九四八年에 組織된 WCC의 產物이 아니다. WCC의 前身인 信仰가 制度 生活과 實踐 이 두 WCC의 基礎가 되는 母體의 命是였던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오늘 WCC는 其事業의 一部로서 教會를 合同하려는 것이라기보다. 世界教會合同運動의 하나의 方法이 WCC라고 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容심으면 容나는 것처럼 教會統一인 WCC의 체를 심어서 一九四八年 암스텔담에서 教會統一인 WCC가 난 것인데 다른 理論이 있을 수 없다.

二、WCC 第一回 암스텔담 會議인 境遇

먼저 이 WCC 中央本部 事務總長 馮 프트博士의 演說을 말해 보기로 한다. 그는 이 첫 WCC 創立總會開會演說에서 WCC의 意義 라는 題目 밑에 世界教會協議會의 참된 意義는 教會統一이다. 하나님으로써 우리들의 救主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WCC에 그 存在의 不可缺한 基礎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問題의 WCC가 처음 낳아진 첫時間 그 總責任者格인 사람이 WCC의 眞意義는 教會統一이다. 라고 宣布했으면 WCC는 教會統一을 指向하는 게 지 무슨 異說이 있을 理없다. 이 WCC가 單一教會를 指向해야 한다는 뜻의 演說은 前記한 사람 뿐만이 한 것이 아니다. 암스텔담 會議의 또 하나의 有力한 指導者 구스타프 아우렌 監督은 教會統一의 重要한 것은 新約의 빛 밑에서 배울 것이며 聖經은 共通基盤이고 그 教會 一致 推進源泉이라고 했던 것이다. 紙面關係로 많은 사람의 이에對한 說話를 例學치는 못하나 우리가 會議錄을 읽을 때 이 教會統一을 論할 말이 없는 페이지는 아마 거의 없을 상싶나.

世紀 初로부터 教派는 사이에 는 많이 使用되고 도하나의 運動이었던 것이다. 二十世紀에 와서 이 WCC의 母體는 信仰과 制度世界會議生活과 實踐世界會議였다. 그런데 一九二七年 信仰과 制度會議를 두렌드主敎가 처음 提案한 目的이 信仰과 制度面에서의 世界敎會統一 이었다 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WCC의 뿌리가 敎會合同인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의 WCC의 前身인 國際會議以外에도 다른 여러會議를 살펴보면 우리는 손쉽게 敎會合同 그것이 그會合들의 主流되는 思想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一九二〇年 콘스탄티노플의 世界敎會總王敎의 呼訴文을 보더라도 一、敎會는 敎理的相違를 超越해서 基督敎精神과 사람의 交際로서 親密해야 한다. 二、敎會는 至今의 UN처럼 共同的 表現과 行動을 할 수 있는 機關을 가져야 한다.

各敎會는 하나의 敎會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때 벌써 世界敎會 合同運動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해 七月에 란머스에서 모인 前記信仰과 制度會議를 살펴 보더라도 그會議에서 高調된 것이 敎會統一 이었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다. 그들은 如出一口로 二敎會再統一은 꿈 이 아니고 하나님의 至上命令이라는 것이며 이 課業의 成功은 主敎만이 이에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다고 했다. 一九一〇年 十二使徒敎會總會에서는 基督敎合同委員會를 設置하고 一九一一年 부터는 基督敎合同季刊이라는 雜誌를 發行케 된 것은 하나의 歷史인대 어찌 否定할 수 있겠는가 WCC에 찬 者들은 그 처음부터 敎理는 分離하고 實踐은 結合한다는 말을 口呼하느니 躊躇치 아니했다.

예를 들면 一九三三年 五月 뉴욕에서 信仰과 制度 生活과 實踐 IMC 世界學生基督敎聯盟 等的 合席會議 때 WA 부라운氏가 이것을 高調했다는 것은 하나의 歷史다.

三、第二의 WCC (에반스톤회의) 인경야

WCC를 單一敎會運動이 아니라는 이들은 一九五〇년 가나나 토론토에 모인 WCC 中央委員會를 말한다. 그 中央委員들의 決定한 WCC의 基本政策에 WCC는 單一敎會運動이 아니라는 것이 明示되었다는 것이다. 筆者는 이 意見에 異議가 없질 않다. 왜냐하면 기록공보에 某博士는 WCC 에큐메니칼運動의 單一敎會運動이 아니라는 것을 立證하기 爲해서 前記가 나나 토론토一九五〇年 WCC 中央委員會의 決定五種을 列擧했다. 그래서 『이것 보드래도 아니다』式的 論法을 使用했으나 筆者는 이런 意見을 가진 이들에게 勸하고 싶은 말이 없질 않다. 먼저 精讀해보시라고 다음 그 다섯가지만 보지마시고 그 全文을 훑어보시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난 다음 그 結論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었으면 한다. 그 第二項에 보면 『聯合問題를 研究함에 있다. 敎會合同이란 各支會가 彼此間 合意에 依해서만이 決定될수 있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러한 內容의 말이 『아니라』하는 말인가 『할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못하고 싶다. 『研究함에 있다』고 했으니 이 研究는 合同 못할 것을 혹은 못하도록 연구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할수 있는 可能乃至 方案을 研究한다는 말인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境遇 萬人을 두고 따져도 前者라고 할사람은 없을상 싶다.

그리고 博士는 그 決議文 終末에 가서 『WCC의 成員인 모—든 敎會는 新約聖書에 基礎해서 그리스도의 敎會가 하나이며 各敎會는 이 統一性에 있는 敎會됨을 나나내기 爲해서 最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義務라고 生覺한다』는 말을 보지 아니하고 判斷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그토론토決定을 보고서 WCC 單一敎會運動이 아니라고 結論할수는 없다. 오히

암스텔담에서 쾨터베리 大主教의 博士에 依해서 WCC 成立案이 可決宣言되고 一同默禱
 가 끝난後 처음 發表된 그 歷史的인 WCC의 몇세—지를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그의 것
 이 되게 하시었다. 이 그리스도는 놓아있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를 求할때 우리는相互를 發見
 할수있고 이곳 암스텔담에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스사로를 새로히드린다. 그래서 서로 이
 WCC의 建設을 誓約한다. 우리는 함께머물려는 者다라고 되어있다. 凡 몇세—지라는 것이
 그 母體를 代辯하는 것이라면 이 몇세—지를 보고서 WCC를 教會合一의 뜻이 없는 것이라
 고 할수있겠는가? 우리는 이問題를 論함에 있어서 암스텔담 會議 第一部の 報告를 無視
 할수없다.

第一部 하나님의 聖意에 있는 世界教會 라는 問題를 그들은 어떻게 料理했는가? 그리스도
 를通해서 참된 教會의 一致가賦與된다. 우리는 이 賦與된 統一을 보여 주지 아니하면 아
 니된다. 우리의 WCC는 이 一致에서 生起여 난것이나. 라고한말을 보아서 單一教會運動아
 니라고 否定할수 있겠는가 어디까지나 그들이 말하는 世界教會라는 것은 統一된 하나의
 教會이지 敎派의 教會가아닌것이다.

以上の 모든 事實을綜合해서 불배 第一回 WCC 암스텔담 會議는 주어진 教會의 統一은
 하나님에 依해서 創造된것이 人間產物이 아니며 또 되어질것도 아니요. 現實的으로 갈라
 진 分裂을 是認하고 教會合同을 指向努力해야만 된다고하는것을 全世界 教會앞에 再確認했
 다고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에도 不拘하고 WCC가 單一教會運動이아니라고 하는 辯
 論은하나의 謠辯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危機의 解決을 意圖한다」고 演說했다.

듀트教授인境遇 「統一은 多樣性的의 抹殺을 暗示하며 沈滯的인 單一不變의 成就를 內包한다. 眞正한 統一은 聖職과 聖禮 안에서 發見되어지는 것이다」하는 말로 統一과 聯合의 差異를 밝혀 統一을 強調했다.

나그렌監督인 境遇 에반스톤은 本質的인 基督敎統一에 參加하고 있다. 서로서도 알게 되는 것은 實質的 統一에 對한 첫段階이다. 오늘날 敎會는 그들의 統一과 分裂사이애 悲劇的인 緊張을 緩和키 爲해서 進展치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하였다.

다음 에반스톤 報告書에 나타난 統一努力과 決議를 보기로해보자. 여기 그 報告 全文을 옮길수는 없다. 추려서 그 概要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먼저 그리스도안에 統一을 말하고 分裂敎會를 論한後 敎會의 多樣性은 罪가 아니지만 이 多樣性이 敎會統一에 對立되면 分離되는데 이가 곧 罪가 되는데, 이 罪를 克服키 爲하여 ①積極的인 統一에의 意志 ② 聖書研究 ③ 他敎派에 對한 重要性 ④ 사랑의 交際 ⑤ 全敎會의 共同陪餐의 再考 ⑥ 信徒의 敎會統一에 對한 重要性 ⑦ 傳道, 使命과 敎會統一과의 本質的關連 ⑧ 敎會一致를 爲한 祈禱週間問題, 그리고 敎會再統一의 前提로서 ① 個敎理보다 全敎理의 統一 ② 使徒繼承의 主敎職等을 主張한 것이라고 하였다.

以上으로서 우리는 WCC 第二回 에반스톤會議에서의 敎會統一問題에 關한 內容을, 直覺하리라고 生覺한다. 이래도 우리는 前記 一九五〇年 토론토 委員會를 들쳐기도하고 더 퍼놓고 아니라는 이들의 말만듣고 WCC는 單一敎會運動아니고 어디까지나 敎派끼리의 交際와 事業의 聯合뿐이라고만 하겠는가?

러 말의 精神은 未來를 約束하고 한다는 것으로 解釋되어진다고 結論아니할 수 없다. 다음이 토론토 決議를 史家は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일은 一九五一年에 그다음해의 中央委員이 말한 바와같이 WCC가 教會統一에 關心을 가진뿐 아니라 IMC와 協力하는일과 또 보다더 明白해진 것이다』라고 했다. 筆者의 生覺에 이 論評이 正評인가싶다. 그다음해 一九五二年 정말 問題의 1)에반스톤會議準備會때 된일을 生覺해보자. 二二〇教派代表 二二六名이 룬드에서 모여서 그을 에반스톤會議의 터를 어떻게 놓았느냐 말이다. 一九二七年 에단버라에서 부터懸案이었던 共同陪餐問題、教會의 連續性、教會의 統一性을 研究했다고 歷史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옳게 알아야한다. 一九五〇年 토론토決定은 小數委員의 決定이 었기때문에 正式 에반스톤準備로 모인 룬드 二二六名 代表者會議에서 無視된것을!

여기서 WCC最高會合 에반스톤 本會議에로 뜻을 돌리기로한다. 먼저 옥스남監督의 開會說敎부터 檢討해 보자. 『우리는함께 成長할것을 願한다』 이말은 옥스남監督開會說敎主題이면 會期十七日間에 되푸리된 말이라고들 한다. 우리는함께 머물기를 願한다』는 標語가 第一回 암스텔담會議때의 것이라면 『함께자라기를 願한다』는 이에반스톤會議開會說敎옥스남氏의 말은 한거름 世界教會統一에로 아니들어갓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本部事務總長 휴프트博士의 境遇 『世界教會運動의 動機는 教會의 具體的인 生活上에 있어서 教會의 聖性、普遍性、價値性、統一性이 不明瞭하게 된것을 悔改하는 意識이요、教會의 性質을 밝히려는 決斷인것이다』라고 WCC의 動機를 말한뒤에 『WCC의 價値있는 唯一한 目標은 分裂되지 아니한 教會를 나타내는데 있다. 그럼으로 우리 WCC는 하늘과 땅에서 한 牧者와 한 羊떼가 있다는 것이 眞實로 나타내는 때까지 그 進路에 나타나는 모—

WCC의 黑人指導者 라자 마니캄博士는 美國 버클레이에서 『로마 카도리敎會가 우리들과 더불어 友誼가운데서 統一될수 있으며 그리스도안에서 함께 前進해 나갈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들의 敬虔한 힘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영감님의 敎派合同의 熱이 지나친 나머지 한말인지는 몰라도 오늘 WCC는 푸르테스탄트 合同運動은 勿論 로마 카도리과의 合同에도 進展되었다는 證據임에 틀림없다.

福音主義信者들은 요한복음 十七장二一절의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안에 있게 하사」라하신 그리스도의 祈禱하신 말씀을 잘 記憶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기서 靈的인 統一을爲하여 祈禱하셨다. 이 統一은 聖神降臨節에 聖靈이 모든 信者들위에 下降하셨을때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聖靈으로 거듭난 人들을 包含한 보이지않는 敎會(靈的敎會) 즉 그리스도안의 木體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 木體는 決코 깨어지지않고 繼承되었으리므로 存續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信者들이 모여 統一되어 禮拜하는 곳에는 어디나 나타나고 있다.

基督敎統一은 内部와 더불어 外部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카도리敎會와 同系인 어떤 種類의 世界敎會(에큐메니칼)方案과 組織的인 制度는 主님의 祈禱에 對한 外部的 對答이 될수 있다는 觀念을 가진 人들이 WCC를 指導하고있다. WCC는 眞理의 어떠한 犧牲을 시키면서라도 敎會의 外部的統一을 일우려고 努力한다. 그 結果로 생기는 單一敎育는 敎理的으로는 유니테리안主義者로부터 가톨릭敎徒까지를 抱擁하는 極自由主義放任主義의團體로되고 實際的으로는 信仰과 聖別보다도 儀式과 制度에 置부하며 形式主義乃至 俗

아직 筆者의 話말은 끝이난 것이 아니다. 여기 에바스톤 會議 때 報告된 有名한 事件 하나를 紹介한다. 올름킨 博士에 依해서 新興敎命便만 하는데도 一九三七年부터 一九五二年 於 間에 十三敎派가 完全合同된 것과 四件의 完全共同陪資이 實行된 事實、敎派合同途中에 있는 것이 十六件 이라는 것이 報告될 때 모이는 會員은 아멘과 拍手를 連發했던 事實이 곳 그 것이다. 우리는 數字의 正確性은 뒤로 미루고라도 오늘 現在 WCC 에 큐메니칼計劃에 依한 敎會統一의 集計가 完全統一이 七四件中 途中失敗가 一六件 總合計 九〇이라는 數에 達했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또하나 오늘 現在 이 WCC의 四大部署中 第四課 에 큐메니칼 活動部의 職能의 限界를 紹介하기로 한다.

① 그리스도敎會의 本質의 統一을 主張하여 WCC와 여러 敎會앞에서 傳道事業에 對한 切迫性과 統一을 明示하는 義務를 지킬 것.

② 敎會統一의 結實을 맺음에 있어서 信仰과 制度와 禮拜를 그의 關連된 適切한 社會的 文化的、政治的、種族的要素를 가지고 研究할 것.

③ 에 큐메니칼 運動과 現存한 神學的 關與를 研究할 것.

④ 말씀을 이르키며 神學的 純化를 必要로 하는 敎會相互間의 現關係事態를 研究할 것.

⑤ 再統合에 對하여 여러 敎會가 取하는 實際的 方法에 關한 情報를 提供할 것이라 했다.

이만하면 『WCC에 單一敎命없소』라는 말을 通하지를 못한다고 본다. 차라리 말은 바로 해놓고 『그러나...보자』式的 論議면 어떨지 몰라도 수전가리우고 『야옹』하는 式的 作亂으로 서는 立證이 서지 못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分離를 避하고 結合을 이룩하려 할 때 全世界敎會 二百餘敎派를 包攝한
에는 이밖에 다른道理가 또 없기때문이라고 生覺한다. 限界線 테두리가 있으면 全然 區分
이 생기고 따라서 無線의 境地를 이룩할 수 없는 原理이다. 萬不得已한 境遇 線이 있더라도 그
線은 最少로 縮少된 가느다란線을 차지아니하면 이룩할 수가 없기때문인 것이다. 筆者가 여
기말한 테두리라는 것은 우리의 信仰과 敎理를 말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經驗에서 聯合運動에 있어서 敎理를 내세우면 自然히 分裂의 結果를 招
來케 되고 그 反對로 이를 無視해버리면 合一의 可能性이 빠르기 때문에 WCC에서는 처
음부터 『무슨 神學인가?』라는 이 큰 難題를 아예 除外키로 했던 것이다. 그 本來의 이
WCC 第一部 信仰과 制度問題가 敎理와 信仰問題를 말하려는 目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없
애기 爲한 研究이지마는 이것이 있는 이상 거기는 論이 있고 說이 달라서 分裂의 危險이 생
기기 때문에 에반스톤 會議以後에 이를 中央委員의 權下에로 옮긴 것도 이 까닭인 것이었
고 이는 또 하나의 實證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線이없는 WCC의 信仰과 敎理의 境地는 그야말로 넓은 天地自由뿐인 것이다.
이 自由의 발에 限定된 神學이나 이것이어야 한다는 信條가 있을理없다. 말하자면 WCC
는 自由主義그뿐인 世界다. 위에 指摘한 이 WCC 憲章 第一條를 이런 意味에서 다시한번
살피기로 하자.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과 敎主로 受納하는 敎會들의 聯合이라했는데 이 範
式은 비록 그리스도의 神格으로 肯定할지라도 여기는 數多한 矛盾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
이 陳述에는 于先 우리에게 에큐메니칼 起源으로 알려져있는 世界福音主義 聯盟의 敎理的
陳述 九個條에 包含된 모든것에는 接觸한바없다. 即 敎主의 成育身 그의 贖罪的 祭祀, 三

化狀態에로 轉落할 것이오. 政治的으로는 教權의 獨裁를 招來하여 中世紀天主敎식의 專橫을 再 演出할 것이다.

福音主義信者들은 聖經的인 福音眞理를 그대로 믿고 살며 傳하는 것을 信仰生活의 本義로 삼나니 어찌 이런 푸로그람에 協力할 수 있으랴? 하물며 韓國敎會는 聖經의 崇高한 權威를 믿고 살고 傳하야 短期間에 大敎勢를 일으킨 것을 感謝히 여기는 敎會니 어찌 이런 方案에 휩쓸려 崩壞를 自取할 수 있는가? 敎會의 靈的統一로 滿足하면서 信仰保守에 邁進함이 韓國敎會의 萬年大計인 것이다.

第三章 WCC는 自由主義神學運動이다

一、敎理와 信仰을 無視한 WCC

WCC는 무슨 神學인가? 하는 問題인 境遇 이는 벌써 敎理問題다. 前章에도 言及한 바 있지만은 그들 WCC의 指導者들은 『敎理는 分離하고 實踐은 結合한다』고 高調하기를 조공도 躊躇치를 아니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歷史라면 이 WCC는 먼저 敎理를 無視했고 可能하면 拋棄하려고 까지 노력했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WCC 運營指導理念이 였기때문에 그 WCC의 憲章 第一條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敎會이면 누구든지 이 WCC의 會員이 될 수 있다고 規定 되어있다. 이 얼마나 敎理를 無視한 넓은 門이였는가? 그들이 왜 이 같이 그 巨大한 世界敎會의 統合綱領을 한 짧은 句語의 말로서 表顯치 아니하랴 아니 되 었는가 말이다.

義神學이라야 하고 모든 敎派가 밝고 올라설 수 있는 聯合의地로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二、自由主義神學의 撰擇

敎理는 分裂한다는 觀念을 가지면서도 敎理上 同意없이는 敎派合同이란 不可能함을 看破하고 나서 그들은 結合이 可能的 神學을 찾게 되었고 그 結果로 그들의게 入手된 神學이 바로 話題의 自由主義 神學이었다. 自由主義神學이 무엇이나? 하면 여기에서는 神學撰擇의 自由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自身の 自由, 信仰의 自由, 解釋의 自由이라고 보는대 그들의 目標인 敎派間에 和平統一은 이 自由없이는 設수가 없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부르크에 메네고즈敎授가 一九三七年 에딘버러會議에 關해서 말하기를 『에딘버러會議는 聖經眞理의 研究와 應用은 完全한 自由로 行해지는 때에 價値있는 貢獻을 信仰에게 하리라는 것을 確信한다고 滿場一致로 宣言했다. 그 會議는 自由롭고 不偏的인 神學에게 完全한 同情을 가졌다』고한 말을 한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WCC가 自由主義神學을 그들의 神學立場으로 定한 것이라고 하는 證據가 아닐 수 없다. 다음 英國의 잘리博士의 에딘버러에서의 宣言을 살펴보자.

『나는 우리를 聯合하는 信仰의 對象이 維持되는限 解釋의 神學的 自由에 贊成한다는 것을 어떤 大陸(유럽)兄弟들의에 確認시키는데는 나의 義務로 본다』고 明言한바를 보드레도 W

CC는 自由主義神學을 正式으로 受納한 基督敎世界團體인 것이다. 이러한 原理에서 세워진 이 自由主義神學의 모자리란 WCC의 神學은 오늘 우리의 筆舌法으로서는 表現키 어려운 程度 雜多한바 있다. 其理由는 上述한바와도 같이 WCC에는

統一體、聖經의 權威、以信得義、聖靈의 事役、復活과 救拔 및 滅亡 등에 對해서는 아무말도 한
바 없다.

이로 보아서 그 第一條의 WCC 信條는 基督教團體의 敎理的 表現으로서는 너무나 짧다
고 아니할 수 없다.

홀튼은 말하되 『WCC는 現在 憲章에 依하면 聖父 하나님도 聖靈도 믿지 아니하는 敎會를
今員으로 受納할 수 있다』 이것은 유니테리안이나 히랍正敎 로마카도리信徒까지 包攝해서 結
음을 이룩하려는 試圖의 하나뿐이지 正當한 하나의 敎理는 못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自由主義神學의 精神인 自由 그것에 信仰告白을 土台로한 言辭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附加陳述된 1. 이 敎理的基礎는 사람이 敎會를 判斷하는 標準이 아니
다. 2. WCC는 敎會들의 解釋의 樣式에는 關心을 두지 아니한다. 3. 그基礎위에 合作하
를 願하는지를 決定하는 것은 各敎會의 責任이다. 라고한바 있는데 以上말에 依하면 W
CC는 어디까지나 自由解釋을 是로했고 그것에서 招來되는 自由信仰을 얼마든지 許諾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말을 바꾸워서 하면 『WCC는 自由主義神學입니다』하는 하나의 告白이라고 斷言한다.

솔링크 敎授가 『그 受納은 共通한 信仰의 告白이나 그러나 그 基礎는 반드시 그리스도
에 對한 共通信仰의 表現은 못된다』한 말과같이 이는 아무래도 敎理的表現으로서는 未完
成品이 아닐 수 없다고 生覺된다.

그들은 왜 이와같은 짧은 敎理의 陳述로서 其憲章 第一條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었는
가? 앞서서도 말한바있지만은 WCC가 大敎會를 指向하는 하나의 統合運動인 以上 自由主

코 이뿐만 아닌 것이다.

이 WCC의 機稿紙 『에큐메니칼評論』에 암스델담 會議의 會員들中에 聖經에 向한 批評이 前의 態度에 돌아가기를 즐겨하는 者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十分 明白한 일이다』고 써어진 바 있는데 이 말을 보코도 WCC를 聖經批評한다는 論評을 虛言이라 할수 있겠는가? 여 기서 筆者는 讀者에게 묻고싶은바 없질않나 前記 에큐메니칼 評論紙의 設論이 WCC第一 回 암스델담 會議의 模寫이라면 後 六年 一九五四年 WCC第二回會議에서는 그보다後退 드나 前進이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實例로서 우리는 다음事件에 留意해야 한다. 一九五四年 前記 에반스톤 總會時 늘워이씨가 提案한 憲章 第一條에 『聖經에 依하여』라는 語句를 追加하자고 했는데對하여 WCC는 이를 完全히 默殺해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또 이와같은 聖經默殺은 또 餘地가있다고 보겠 으나그러나 이보다 한술 더뜬 聖經을 批評하 는者가 바로 長老敎總會 神學校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注視해야 한다. 이는 某敎授의 就 任誓約의 經緯에서 밝혀졌으니

一九五四年 秋季 該理事會에 依해서 敎授就任誓約書에 署名할때 生起인 일인데 誓約書 「나는 新舊約聖經이 正確無誤한 하나님인 말씀인것을 承認하코」 하는 語句에 正確無誤 이 라는 文句를 두고서는 誓約할수 없다고 拒絶함으로 理事會에서는 無事主義를 踏步기爲해서 그의 뜻에 따라서 信仰과 行爲에 對하여라고 修正해서 싸인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 면 結論的으로는 新舊約聖經의 『正確無誤性』을 否認하는 것이다. 如何든 筆者는 이만하면 그를 爲해서나 韓國敎會의 信仰을 爲해서 이 事實은 숨겨둘 必要가 없다고본다. 그래서 이를 天下에 發表하고 讀者이 判斷을 기다리는 바다. 이는 두말없이 大韓에수 敎長老會信條 第

『그렇게 하면 아니된다』는 線이 없기 때문에 百人百神學이 共存하는 勢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WCC憲章 第一條 『예수를 하나님과 救主로 믿는……』하는 陳述은 本來 유니테리안 教派에게는 어림도 없는 反逆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WCC에는 유니테리안도 健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유니테리안이 健在할수 있는 WCC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있을 神學이 없다. 보라— WCC에는 極端으로 左傾된 新神學 公正反對立場인 正統主義神學 또는 이도지도 아닌 所謂 新正統主義等을 비롯해서 神學이라고 呼稱되는 것으로 없는 教派가 있는가?

問題는 이러한 神學의 雜湯인 WCC가 어느神學路線을 가는가의 問題뿐인 것이다. 이 境遇 그는 實力에 依해서 左右된다는 原則이 있을뿐이다. 그러면 WCC의 神學的實力은 어느便 누가 掌握했는가 할때 前記 第三者인 美國의 新正統主義者들에 依해서 나가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異議가 없을상 甚다.

三、그들의 聖經觀

학말고해서 WCC에는 聖經을 批評하고 蔑視하는 者들이 높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몇사람의 境遇를 例로 들어보자. 佛蘭西 에큐메니칼 指導者의 第一人者 쿠넬의 聖經觀을 紹介해보면 『普通教會의 每人에게 全體靈感(聖經에)의 信念에 隨伴하는 文字主義의 誤謬들과 迷信들을 賦課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우리 에큐메니칼 指導者等은 그것을 代身에 科學的 歷史的 批評의 神聖한 權利를 尊敬한 다는 것을 안다』고 證言했다. 이것은 WCC의 代辯이나 前記 筆者가 이 WCC는 聖經을 蔑視하고 批評하는 集團이라는 말이 虛言이 아니다. 그리고 이 WCC의 聖經批評精神은 決

피로된 우리韓國教會의 可恐의 對像이 아닐까? 두말없이 WCC는 自由主義 新神學의 모지
리판 아니고 무엇이냐?

五、WCC는 예수의 再臨을 否認하는 이들에 依해서 成長하고있다. 온 世上이 周知하는

바 그대로 世界의 所望인 그리스도 라는 말이 一九五四年 에반스톤 總會의 主題였다.

WCC 中央委員會는 總會가 열리기 몇해 前에 世界 여러나라에서 三十二人의 神學者들을

動員해서 이話題 WCC 標語를 研究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再臨을 말한 草案이 發表되

자 유롭地區 神學者들은 舉皆가 이를 受納했으나 美國神學者인 境遇 이를限死코 反對한

것이였다. 이와같이 이草案은 修正되고 또 되어서 第三次番제가서 前記反對軍들의 제도 歡

迎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不幸이도 예수그리스도의 再臨의 信仰이 完全히 除外되고

말았던 것이였다.

이러한 無再臨의 論文이 바로 먼저 一九五四年 에반스톤總會를 어지럽게한 原因인것은

우리는 잘안다. 솔링크 博士인 境遇 『예수의 再臨을 믿어야 한다』하고 칼훈같은 이는 『하

나님 나리의 預兆는 疾病과 飢餓의 征服, 奴隸制度的 廢止, 그리고 私事에서 부터 公共事

業에 이르는 基督敎良心의 擴張에서 이미 나타났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實際的再臨을 完全

히 否認해버리는 것이였다.

이들 兩思想의 否認이 總會를 어지럽게 할때 獨逸의 릴제博士의 그리스도의 再臨을 반

아민는 調整委員會의 報告가 그리스도의 再臨을 否認하는 美國派의 自由主義神學者 들에게

하나의 거슬리는 차동이 아닐수는 없었다 WCC는 主題의 바른理解를 내리지 못하고 前

記 申報告書를 함께 發表하여 研究하라는 資料로서 남겨 두었다. 이와같은 結論은 至小榮

一條와 第三六總會의 決議違反임을 말해둔다.

四、新神學主義者들에 依해서 指導되는 WCC 여기에서 論하려는 人士들의 神學思想을 神學的인 術語로하면 基督純人論이라고 하겠다. 卽 그리스도의 神性を 不信하고 그리스도를 사람中의 宗教的、道德的으로 最高한 先生과 模範人物로 떠마치자는 危險千萬의 思想인 것이다. 이 思想의 論祖라고 할지 話題의 人物은 바로 이 WCC의 最初提唱者 쇠더부름 監督이다. 그는 一八九二年 公判論文中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爲해서는 宗教經驗이 必要하다. 우리自身들의 救援에 가지는 그의 意義에 依해서 우리는 그가 神인지 아닌지를 能히 決定할 수 있다. 하였고 바로 이 WCC의 第一部 信仰과 制度部長되는 아우렌 監督의 말은 『그는 하나님과 同一하신것이 아니라 다만 그와 아버지과 하나이시라는 말은 意志心情目的 事役에서 하나이라는라는 뜻이다.』 하였고 또하나의 WCC指導者 뎀플의境遇는 예수의 하나님과 同一性은 眺望의것 意志의것 恤恤의것이다 라고들 했으니 이들의 가슴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觀이 있을理없다.

至今까지 筆者가 論해온 바에 依하면 처음에 引用된 人物들은 WCC의 自由主義神學立場을 證言하였고 前段에 引用된 몇사람은 自己들의 품은 自由主義神學 自體를 暴露한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 WCC提唱 主産母 첫째 맴버에 드는 이들 이라는데 우리의 關心은 더큰 바있다. 紙面關係로 一히 學論이 不可能하지마는 에큐메니칼의 大指導人物로서 美國의유니온 神學校長 벤두젠博士로 爲始해서 베빌마카이. 자난 美國聯合長老敎社會 때 『眞貞女誕王信仰에 忠誠할수 없소』 하고 問題를 이 르킨 美國總會直營神學校 산푸렌시스코 神學校長 길博士 벨트, 부르너, 밀리키 누구 누구 할것없이 이들이 新神學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어찌 保守主義의

福音主義信仰을 품고 實踐하며 傳播하는것을 秘訣로 하여 하나님을 祝福을 많이 받은 韓
國教會로서는 敎勢의 崩壞를 覺悟함없이는 이런 眞理無視의 危險한 運動에 參與할수 없는
것이다.

光中에 信徒들과 함께 계시는 主께서 어찌 나시 오는가? 라고 演說한 우스남 監督의 談法이 勝利였기 때문에의 結果라고 하겠으나 如何든 境遇 WCC는 再臨을 研究하는 會議지 믿는 基督敎會議는 못되는 것이다. 나는 WCC의 예수 再臨問題를 云調함에 있어서 또하나의 長老敎 總命神學校의 會은 事實을 默過할 수가 없다. 話題는 今年 七月十三日 大田서 施行한 長老敎總會牧師 考試에 生起케된 事件인데 말하자면 五十名에 十二名比例가 前記 自由主義神學者들의 態度와 같이 그리스도의 再臨을 否認하고 만 事實이다.

新神學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를 神學校研究室이나 著名한 神學者의 敎義學冊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다. 바로 WCC에 가면 있다 이것을 指摘하는바다. 우리의 所望되시는 그리스도의 再臨을 否認하는 그 어느 神學에도 우리는 應從할수 없은 것이다. WCC가 이러한 예수의 再臨을 研究해보자 하는 以上 우리韓國 敎會가 따라갈 神學은 아닌 것이다. 우리에게는 新舊約聖經이 있을 뿐이고 우리信條가 있을 뿐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하는 信仰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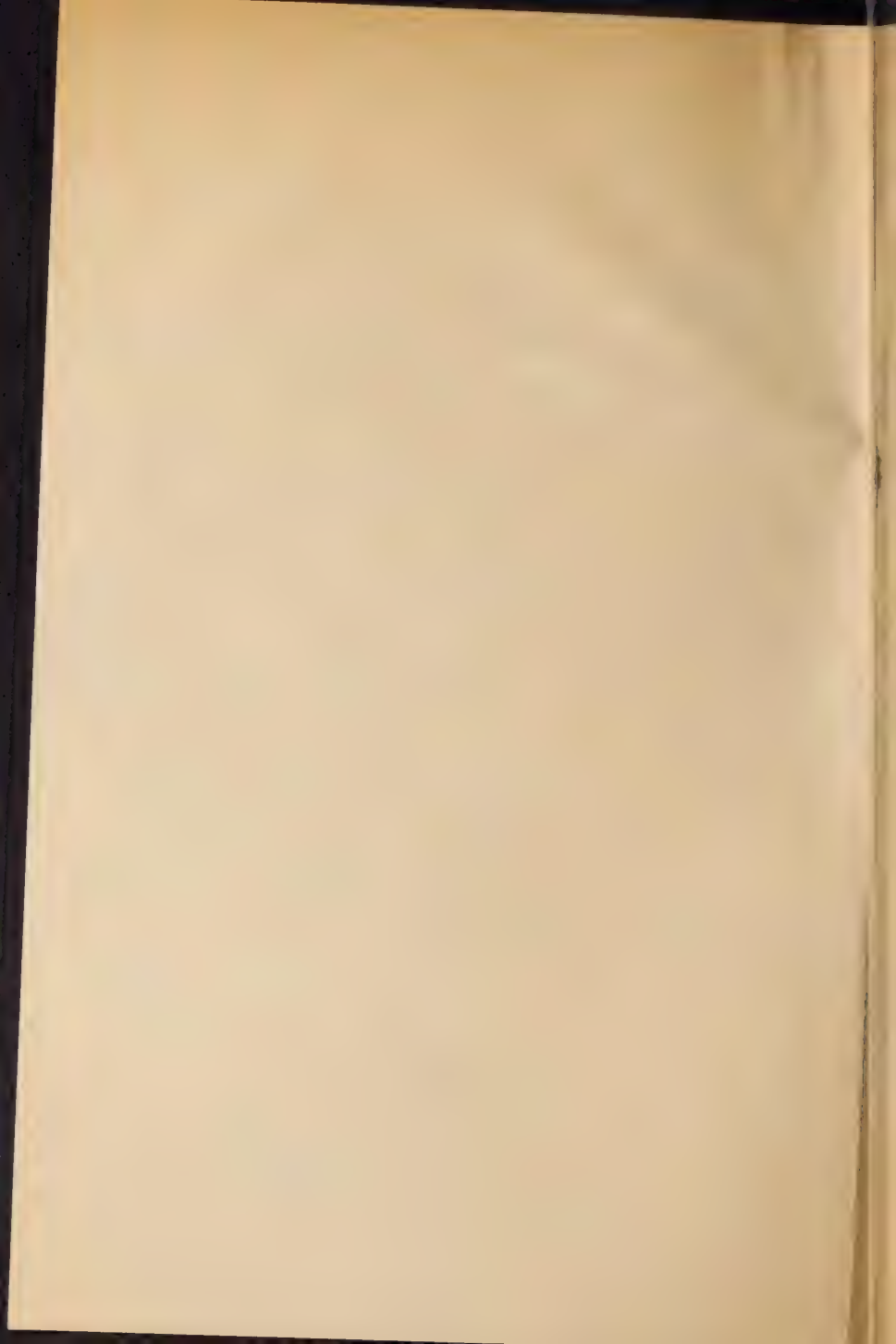
X

X

X

X

WCC 에큐메니칼 運動이 神學的自由主義에 터한 危險한 運動이라는 것을 說破함에는 辯論을 延長할 必要가 없다. 敎會의 生活에 親善이 貴하며 事業이 崇기도하나 福音眞理의 犧牲을 覺悟하면서 自由主義運動에 加擔하여 親善과 事業을 追求할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敎會는 福音眞理의 基礎위에에서 그것을 守護하는 기능과 터의 職務를 하는 자니 그것을 犧牲해서 親善과 事業上 聯合을 追求할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WCC의 目的은 敎會의 親善과 事業上 聯合에 및지않고 單一敎會를 指向 하는 運動인 것이 分明함이라? 聖經的인



WCC(세계교회협의회 運動의 正體)

1959年 9月 15日 印刷

99年 9月 18日 發行

15年 11月 10日 再版

【非賣品】

著者 朴 炳 勳

印刷所 泰西堂印刷株式會社

電話 ② 6723



국제기독교지도자강연회 The Fundamental Faith and Freedom Rallies by The Four ICCC Leaders



Dr. CARL McINTIRE



Dr. J. G. HOLDCROFT



Dr. C. KENNEDY



Dr. A. G. SLAGHT

강사 { 맥인타이어 박사 (ICCC 회장)
 허대천 박사 (ICCC 선교협의회장)
 케네디 박사 (ICCC 회장)
 슬라이트 박사 (ICCC 중앙위원장)
 강연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인천)



(第一回 ICCC 大會 기념 촬영)

주최..... 재한장로회·독립선교부
 후원..... 국제기독교지도자환영준비위원회

소 개 의 말 씀

하나님의 참된 증 배분을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님 앞에 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을 한없이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 네 지도자는 오늘날에 『십자가의 거치는것』(갈:5:11)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들이며 그들을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불신자들과의 타협을 원치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그이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유다 3)를 변치않는 교역자들입니다. 혼란한 이 죄악세상에서 진리의 파수군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하여 『분명치 못한 소리』(고전 14:8)를 교회에서 말하지않게 하실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들으시면 결코 무관심 할수 없을것 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분들의 증거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1959. 11. 10

재한선교사

D.R. MALSARY

馬 斗 元

※ 칼맥인타이어 박사 (Rev. CARL McINTIRE D. D.)

국제기독교 연합회 회장. 「카렌스운」 성경장로교회 목사.
「크라쓰찬 삐콘」신문 주필. 기독교문헌 서술가.

※ 러 데 전 박사 (Rev. J. GORDON HOLDCROFT D. D.)

40년간 한국선교사로 시무 했음. I C C C 선교협회회장
미국장로회독립선교회회장. 월간 『비비라칸 밋손』편집인

※ 케 네 디 박사 (Rev. CLYDE KENNEDY D. D.)

미국기독교연합회 회장. 전「하이랜드」대학 학장.
개혁과 장로회 연합회 위원장. 「타코마」성경장로교회 목사.

※ 스 래 이 트 박사 (Rev. ARTHUR G. SLAGHT D. D.)

I C C C 음영위원장. 성경장로회 23회 (금년도) 총회장.

서울시공관강연회순서

=1959년 11월 13일 상오9시=

사회 김운찬 목사

1. 목 도..... 일 동
2. 찬 송..... 371 장 일 동
3. 기 도..... 이대영 목사
4. 강사소개..... 김경래 선생
5. 강 연
 - 허 대 전 박사
 - 맥 인 타이 어 박사 (통역·변홍규 박사)
 - 캐 네 디 박사 (통역·신사훈 박사)
 - 스 래 이 트 박사 (통역·장수철 선생)
6. 광 고..... 명신익 목사
7. 찬 송..... 1 장 일 동
8. 축 도..... 이규갑 목사

<다음집회 안내>

- | | |
|------------------------------------------------------------------------------------------------------------------------------------------------------------------------|---------------------------------------------------------------------------------------------------------------------------------------------------|
| <p>※ 15일(주일) 상오 11시
 흥천교회 (허대전 박사)
 평안교회 (맥인타이어 박사)
 중앙교회 (스래이트 박사)
 남산교회 (캐네디 박사)</p> | <p>※ 15일 하오 2시 연합예배
 평안교회 (서소문동)
 ※ 19일 하오 7시
 환송음악예배
 평안교회에서</p> |
|------------------------------------------------------------------------------------------------------------------------------------------------------------------------|---------------------------------------------------------------------------------------------------------------------------------------------------|

복음의 사자들의 내한

영의 고갈을 당한 우리교회에 영생의 생수를 줄수 있는 복음 주의 지도자들이며 성화의 사자 오다.

A. Dr Carl MCINTIRE.

President Inter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C.C.C.)

A. 칼. 맥 힌타이어 박사(국제 기독교 연합회장)

B. Dr J. GORDON HOLDCROFT.

President Independent Board fo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

B. 제이. 요-든. 홀드 크로프 (허대전 목사) 박사 (장노교 독립 외국 선교부 회장)

C. Dr CLYDE J. KENNEDY

President. America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C.C.C)

C. 크라이드. 제이. 케네디박사 (기독교 미국 연합회장, 계획파와 장노교 연맹회장)

D. Dr ARTHUR G. SLAGHT.

Moderator 23d General Synod of Bible Presbyterian Church.

D. 아-더. 지. 스타트 (성경장노교회 23회 회장)

I. C.C.C. (국제 기독교 연합회) 라는 단체는 성경을 진실로 믿는 교회들 간에 서로 도우며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한 복음주의 신앙을 바로 얘기할 것이며, 또한 이들은 세계 연합교회(W.C.C)의 존재에 대하여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경보할 것이며 이 W.C.C의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과 또 공산주의를 양망하는 자도있는 이단체에 대한 사실도 경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라! 또 여러분의 친우들을 동반하여 오라.

주최: 장노교 독립 선교부 (I. C. C. C.)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 22, 1961

0.

~~John C. ...~~

Dear Sir -

This is to state that the ~~Presbyterian~~ ^{Three} ~~Church in~~ ^{U.S.} ~~the United States,~~
Korea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Australian~~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have deeply regretted the recent divisions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have made every effort
toward unity in the Church. Because of influences
from outside the country over which we have ^{no} control
we have not been successful in this. In view of this
situation, however, we wish to state that our Three
Missions have consistently continued to work with
and to recognize as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group whose ^{representative} ~~moderator~~ has been the Rev. You Chae Han
and we consider this group to be the continu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with which we have worked
since the first ^{Presbyterian} missionary to Korea arrived in 1884. It is
with this Church that we continue to work to the present time.

교회 지도자 여러분

지난 5월 4일 리틀 박사 께서 여러분을 서울에 모신 자리에서 선교부와 교회 사이의 상호약정서에 관하여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일부에 있는 것 같은 오해를 풀어 드리고자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이하 "총회" 라함)와 미국연합장노회 선교본부(이하 "선교본부" 라함) 그리고 미국연합장노회한국선교회(이하 "한국선교회" 라함)가 각각 인준한 상호약정서의 사본을 동봉하여드리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리틀 박사 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선교본부는 이 상호약정어 지난해 대전에 모였던 총회에서 선포될 것으로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선교본부는 한국선교회의 최종적인 해체를 선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총회의 비극적인 본렬로 인하여 이 약정을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본부는 총회가 언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총회와 공동으로 이 약정의 최종적인 이양식을 거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여러분 께서 모이셨든 비공식 회합에서 오는 9월 총회에서 이 이양식이 거행되었으면 좋으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리틀 박사 와 저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본부와 한국선교회는 이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증거로서 벌써부터 이 약정에 근거하여 선교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회의 매년 사업 경상비 예산은 이전과 같이 한국선교회 단독으로 편성 관리되지 않고 이미 그 책임이 협동사업부로 이양되었습니다

Samuel H. McMeht

마 삼 락 올림

2
Respectfully submitted

John N. Somerville
Chairman,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U.S.}

Allen S. Clark
Acting Commission Representative
Korea Mission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lan F. Stuart
for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1 copy
4 copies

교회 지도자 여러분

지난 5월 4일 리틀 박사 께서 여러분을 서울에 모신 자리에서 선교부와 교회 사이의 상호약정서에 관하여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일부에 있는것 같은 오해를 풀어 드리고자 대한예수교장노회총회(이하 "총회" 라함)와 미국연합장노회 선교본부(이하 "선교본부" 라함) 그리고 미국연합장노회한국선교회(이하 "한국선교회" 라함)가 각각 인준한 상호약정서의 사본을 동봉하여드리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리틀 박사 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선교본부는 이 상호약정어 지난해 대전에 모였던 총회에서 선포될것으로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선교본부는 한국선교회의최종적인 해체를 선포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총회의 비극적인 분렬로 인하여 이 약정을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본부는 총회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총회와 공동으로 이 약정의 최종적인 이양식을 거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 여러분께서 모이셨든 비공식 회합에서 오는 9월 총회에서 이 이양식이 거행되었으면 좋으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리틀 박사 와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본부와 한국선교회는 이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증거로서 벌써부터 이 약정에 근거하여 선교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교회의 매년 사업경상비 예산은 이전과 같이 한국선교회 단독으로 편성 관리되지 않고 이미 그 책임이 협동사업부로 이양되었습니다

Samuel H. Moffitt

마 삼 락 올림



#	RADIOGRAM					
OUT CHECKER	MINISTRY OF COMMUNICATIONS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제1부					
CIRCUIT	SPECIAL DESIGNATE	CHECKER	CASHIER	ACCEPTER	ACCOUNT	CHARGE AMOUNT
SERIAL NO	CLASS	STATION FROM	NUMBER OF WORDS	REMARKS	DATE & TIME FILED	
					Nov. 11, 1959±	

TO

ALAN STUART, PUJAN; HOWARD W. FETT, TANGU; JOHN PALMAGE, TAIJON; JOHN FOLTA, KIANGJU;
 F. BROWN, MOKPO; STANTON WILSON, ANDONG; JOSEPH HOPPER, CHUNJU; ALGER BOYER, SOONCHUN

SEE ADVERTISEMENT TONGA ILBO NOVEMBER ELEVEN FOR OUR CHURCH LEADERS WHO HAVE JOINED
 WITH KOREA PAN IN INVITING MCINTYRE PARTY TO KOREA BAIRD

SENDER'S NAME AND ADDRESS:

(NOT TRANSMITTED)

R.H. Baird, Inculcate, Seoul

발신인 주소성명:

(4292.1. 5,000회 제1부)

Ad. in Tonga Ilbo Nov 11, 1959

국제기독교 지도자 내한 강연

전국 기독교신도에게 드림

쏘련의 공산 두목 " 흐루시초프 " 가 방미했을때 전미국의 반공 자유
민들을 일깨워 " 반후 " 운동과 용공정책 반대 신도대회를 " 뉴-욕 "
" 워싱턴 " " 필라델피아 " " 로스엔젤스 " " 디모이 " 시등 주요 도시에서
인도한바 있는 좌기 4명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내한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순회강연회를 개최하게되었아오니 본 행사 진
행 기간중 많이 참석하셔서 얻는바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내한 강사 명단

- 가) 1, 맥인타이어 박사 (국제 기련 회장, 크리스찬비콘지 주필)
- 2, 홀드크로프트 박사 (국제 기련 선교회장, 전 재한 선교사)
- 나) 3, 캐네디 박사 (미국 기련 회장, 개혁파 장노회 연합회장)
- 4, 스테이드 박사 (국제 기련 래디오, 텔레비 위안장)

1) 일정

- 11월 12일 (목) 도착 경무대 레방, 기자 회견, 환영회
- 13일 (금) 서울 시공관 (9시) 합동 강연회
- 14일 (토) (가) 반 춘천, (나) 반 인천
- 15일 (일) 서울 흥천 평안 총정 창신 교회서 설교 하오 ————— 연합 예배 (승동교회)
- 16일 (월) (가) 반 대구서 밤집회 (동부교회)
(나) 반 광주서 밤집회
- 17일 (화) (자) 반 대구서 오전집회, 부산서 밤집회 (남교회)
(나) 반 광주서 오전집회, 전주서 밤집회
- 18일 (수) (가) 반 부산서 오전집회, (국제극장)
(나) 반 전주서 오전집회

19일 (목) 대전서 (가) (나) 합동 오전집회, 서울서
환송회

20일 (금) 이한

1) 강 연 내 용

- 1, 기독교 세계의 현실 2, 에큐메니칼 운동 과 떠붙유 씨씨
3, 기독교 와 공산주의 4, 보수 신앙동지의 협동 그타

1959년 11월 일

국제 기독교 지도자 내한 환영 준비위원회

위원,	김운찬	명신익	방우하	이대영
	주기용	한병혁	명신흥	황성수
	김경래	신사훈	안도명	이상용
	황금천	외	32명	

ℳ 열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23 흥천교회 (명신익
김경래)

Council representatives come to South Korea and discuss the ecumenical movement. Until the invitation was issued, Council officials had not participated in any way in events which led the General Assembly to dissolve. While in Korea the ICCC team members did not attack missionaries working in that country nor did they attempt to steer the denomination into this area of influence. After fulfilling the requests of its Korean hosts, the team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n November 24 the General Assembly was reconvened with 206 of a possible 272 delegates present. The delegates voted unanimously to withdraw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On November 27 delegates issued a document, "Principles and Policies of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which pinpointed reasons behind the controversy. Under "Policies," item one stated "As we have been assured that W.C.C. and ecumenical movement of that line are embarrassing the holiness of church and union with Christ, we proclaim within and without that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is to be forever withdrawn from W.C.C. and have no relation with its ecumenical movement." It appears that contrary to Dr. Bell's comments, the Korean division was caused by doctrinal differences. In theology the doctrinal differences between liberal and conservative Christianity are many and varied. No one in religious circles seeks to deny that these basic differences exist.

Also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failure of ecumenical journals and observers to report that any more than a "substantial minority" voted to withdraw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o sever all connections with the ecumenical movement. American readers are consistently left with the impression that the bulk of Korean Presbyterians favor continued membership in the WCC. This attitude is also in direct contrast to the facts of the reconstituted General Assembly of November 24 where 206 of a possible 272 delegates voted unanimously for withdrawal.

Dr. Bell asks "misguided" American friends to not contribute funds to conservative Christians in Korea because "it will be like pouring fuel on a flame and recipients of the money will use it not to 'defend the faith,' but to further their own personal plans." Such a statement is in keeping with a vigorous program to discredit the conservative leaders in the Korean denomination. Through confusion of similar-sounding names attempts have been

1/3/60.

OPINIONS OF

Council Takes Issue With Bell On Presbyterian Setup In Korea

In the Dec. 24 edition of The Asheville Citizen, your staff writer's story on "Dr. Bell Returns from Korea Trip," contains several inaccuracies concerning the situ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t the present time. Dr. Bell's comments upon his return from South Korea seem at variance with reports contained in journals of an ecumenical persua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 first fallacy surround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denomination is that a "dissident," "substantial minority," group of opponents to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brought on a rebellion along ecclesiastical lines in order to get their church to withdraw from the WCC and the ecumenical movement. The Christian Century, ecumenical press service, Presbyterian Outlook, and Dr. Bell have all attempted to convince American Christians that a small group of "rabble rousers" have been changing the whole course of the largest denomination in the Far East in order to gain more power for themselves.

In his story Dr. Bell is quoted as saying "... that the basic Korean problem is not doctrinal. . ." However, the December 16 edition of The Christian Century, in an editorial entitled "Will Korean Disruption Spread?", declares "Another major factor in the disruption is the extreme theological conservatism of Korean Christianity. . ." When confronted by an apparent breakdown of belief in fundamental Christian tenets, the theological conservatism of Korean Christianity revolted agains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ubtly seeking to water their Faith.

First reports of the division came to the United States via Ecumenical Press Service. The October 16 edition stated that the conservative group favored "withdrawal of the church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n its December 11 edition, EPS reported "The rift stems from a dispute which developed in the church when the minority group opposed continued membership of the church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attacked the use of the word 'united' in the title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made to link conservative pastors with fraud, misappropriation of funds, and black market activities. A many-dimensional smear campaign is being used to protect the interests and investments of ecumenical agencies in Korea. What is not reported by Dr. Bell and others is the fact that orphanages, widows' homes, seminaries, and religious publications not aligning themselves with the ecumenical position have had all support from Southern and Northern Presbyterian denominations in America, and Presbyterian denominations in Australia and Canada, cut off. On December 21 The Christian News, an interdenominational publication in South Korea, reported that Church World Service was expelling from its ranks all members of the conservative group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 story also indic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action would have a wide-ranging impact on denominational agencies throughout the country who have been receiving food and clothing from this particular interdenominational relief agency. Church World Service is the relief arm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 S. A., and is supposedly dedicated to supply food and clothing to needy groups throughout the world without regard for nationality, race, or creed.

In th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Council has conducted a campaign to raise \$100,000 to help the Koreans bridge the gap between loss of their support and the time when the denomination will be able to get back on its feet. This money will be used to pay salaries in seminaries, take care of food and operational costs in orphanages and widows' homes, and to meet emergency needs where loss has been sustained.

The money is being provided with no strings attached. The Korean people realize the International Council does not expect their church to join its ranks just because it has stepped in to help in a critical time of need. Funds are being supplied out of Christian concern for a people who are being punished because they feel and exhibit the strength of their convictions. A main purpose of the ICCC in providing financial aid at this time is to alleviate economic pressures applied by agencies trying to keep the denomination within the sphere of ecumenical influence.

As to the wild allegations and assertions made by "certain extremists and rabble rousers" concerning communist sympathy and liberal theology existent with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Dr. Bell fails to point out that up to this time no attempt has been made by the WCC or its apologists to refute any of the documented information presented which indicates the nature of that organization's pro-communist activities and dedication to the promotion of a liberal theology. It would seem that removal of the allegations can be accomplished only by a complete, documented refutation by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 am sorry my comments are lengthy. However, American Christians have been receiving only a one-sided view of the Korean situation. In fairness to the Christians in that country who are involved in the struggle, and in fairness to the spirit of America's traditionally free press the other side of the story must be presented.

Ronn Sparger
Director public relations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Collingswood, N. J.

7/12, 1959

Korea Times

in
on-
the
ea's
os-

1

rning
the
on of
gsang
d by
you-
n the
apus,
near-
ssing
rship
fur-
the
suc-
p the

it is
ction
l was
the
inis-
pro-
n the

at in
forts
eracy
fered
dent.
o ask
hori-
amdo
trai-
ward
.
Rep.
mber
ittee
ntra-
at a
way
to
tion.
Re-
wan-
re-
the
Nan-
yved
uri-
tion
plice
took

ICCC Leaders Due here Today For Lectures

Four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CCC) will arrive here today for a nine-day visit to give a series of lectures in eight major cities of Korea.

The four American churchmen are Dr. Carl McIntire, president of the ICCC; Dr. J. Gordon Holdcroft, president of the ICCC's the Associated Missions (TAM); Dr. Arthur G. Slahgt, chairman of the ICCC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and Dr. Clyde J. Kennedy, president of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n ICCC report said the team is "invited" by Korean ministers and elders opposed to membership of their denomination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recognition of the name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he purpose of the visit, the report said, is "to participate in the settlement of a serious church schism in south Korea and to provide support for a group of south Korean Presbyterians opposing continued membership of their church in the WCC."

They are scheduled to drive their campaign from tomorrow to Nov. 19 in Seoul, Inchon, Chunchon, Pusan, Kwangju, Chunju, Taegu and Taejon.

The first lectures by the four visiting churchmen will be given at the Municipal Theater of Seoul at 9 a.m. tomorrow. Major subjects will be the present

Christiandom, Ecumenical movement and WCC and Christianity and Communism.

Four U.S. Churchmen Due on 9-Day Visit

Four leading American churchmen will arrive here Thursday on a nine-day lecture tour of eight major cities.

Scheduled to make the trip, at the invitation of a group of Korean Presbyterians opposed to membership of their denomination in the World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re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urches, Dr. Carl McIntire; Dr. J. Gordon Holdcroft, president of the Associated Missions of the ICC; Dr. Arthur G. Slaght,

chairman of the ICC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and Dr. Clyde J. Kennedy, president of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n a statement accepting the invitation, the ICC head declared, "In our mission to Korea we want to explain to our fellow Christians the precise way in which the leadership of the ecumenical movement is working for the recognition of Red China and her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lecture subjects include "Christianity and Communism," "Current Trends in World Christianity," "Ecumenical Mov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and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Cold War." The team is scheduled to hold meetings in Seoul, Inchun, Choonchun, Taegu, Gwangjoo, Junjoo, Pusan, and Taejun.

Four U.S. Churchmen Due on 9-Day Visit

Four leading American churchmen will arrive here Thursday on a nine-day lecture tour of eight major cities.

Scheduled to make the trip, at the invitation of a group of Korean Presbyterians opposed to membership of their denomination in the World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re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urches, Dr. Carl McIntire; Dr. J. Gordon Holdcroft, president of the Associated Missions of the ICC; Dr. Arthur G. Slaght,

chairman of the ICC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and Dr. Clyde J. Kennedy, president of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n a statement accepting the invitation, the ICC head declared, "In our mission to Korea we want to explain to our fellow Christians the precise way in which the leadership of the ecumenical movement... is working for the recognition of Red China and her ad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e lecture subjects include "Christianity and Communism," "Current Trends in World Christianity," "Ecumenical Mov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and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Cold War." The team is scheduled to hold meetings in Seoul, Inchun, Choonchun, Taegu, Gwangju, Junjo, Pusan, and Taejun.

Schism in Church:

ICCC Starts Anti-Communist Campaign in Korean Cities

What will happen in the Korean Christianity within a week or thereafter?

The question arose among Korean churchmen with the arrival here Thursday of the four leader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 world-wide Protestant organization, opposed to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ir arrival, on the one hand, was welcomed by a group of Korean churchmen but on the other, seemed to create a good deal of confusion because the four American churchmen, announced before their departure the purpose of their visit is "to participate in the results of a serious church schism in Korea." The announcement further stated they were invited by Korean churchmen and they will make the flying trip "to provide support for a group of Korean Presbyterians opposing continued membership of their church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ir visit seems to coincide with a recent split in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which holds a legal membership of the WCC since the world Protestant body was organized in Amsterdam, Holland, in 1918, where ICCS was also organized. Besides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s also a legal member of WCC since 1919. There are no denominations in Korea which have membership of ICCS.

Upon their arrival at the Kimpo airport, president of ICCS Dr. Carl McIntire declared they will launch anti-Communist movement in Korean churches, blaming a certain world Protestant group's ecumenical movement. Three other persons accompanying him were Dr. J. Gordon Holdcroft, president of the ICCS's the Associated Missions; Dr. Arthur G. Slaght, chairman of the ICCS Radio and Television Commission and Dr. Clyde J. Kennedy, president of the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They began their nine-day campaign opposing what they call pro-Communist trends in churches as well as opposing WCC at the Municipal Theater in Seoul. They are scheduled to present similar campaigns in other major cities of Korea before they leave Nov. 20.

Comments and opinions on the American churchmen's purpose are varied

An official of the Korea Christian Anti-Communist Committee which is known to have invited the team said "the occasion is very significant for their inspiration of the anti-Communist movement in the Korean Christianity."

Rev. Yoo Ho-choon,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 who also belongs to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said their campaign is a "just propaganda for ICCS." He said ICCS takes various themes for propaganda purposes. It usually takes anti-Communism, he said and added McIntire led an anti-Khrushchev movement in America when the Soviet Premier visited the United States recently. Rev. Yoo continued that ICCS led an anti-Catholic movement in Latin America where the Catholic church dominates most of the population.

"It is not necessary to oppose their campaign here but some efforts must be made to inform Korean Christians what ICCS really seeks here," he said.

Another opinion came from Presbyterian minister Kim Yu-chan, who is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to welcome the visitors and is known as one of the lead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which broke up with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in the 44th general convention last month.

Rev. Kim said "their visit is a little early to support the splinter group because the separation is still not quite decisive yet. In personally welcome the visitors but have no intention of gaining Korean membership in ICCS nor have I heard of such a movement among other Korean church leaders for membership in this world organization," he said, adding he holds a wait-and-see attitude.

Schism in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is notable. There are three sects, the so-called Koryo sect centered around Pusan,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and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the Republic of Korea. A group broke up with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Korea but has not so far been reported to have formed any new organization.

What result will the ICCS campaign bring to Korean Christians and what effect will the campaign have on Korean Church leaders? Will time tell us?



November 20, 1965

To our entire Radio Family:

Beloved in the Lord:

This immense fan jet has just left Kimpo Airport in Seoul, and Mr. Stormer and I have had the most tremendous experience these last four days here in Korea. I am certain that if you could have been with us, if every member of our radio family could have sat by our side, you would have been thrilled and your heart would have praised God to the fulles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nd since 1959 we have given these Koreans \$100,000 a year as a Christmas gift. When we see what it has accomplished and see the gratitude and the spirit of these dear people who have sacrificed everything for the sake of Christ — yes, it is more blessed to give. We have been the givers and our blessedness exceeds even this which we see in them.

I came back to Korea—my eleventh trip—to get this report, to see our many, many orphans, and make plans for the Christmas offering of 1965. The doors are open here; there is freedom. Into this land of such pain, grief, sorrow, horror, death; into this land of poverty and such terrific dislocations; into this land Jesus Christ has come with this hope. I truly feel that you and I, all of us, are messengers of our blessed Saviour. We are answering their prayers and helping them in so many, many ways. Because these people with whom we have fellowship have put the Lord first — and they truly have done so—we have come to help them in His precious name.

Our little orphans, some of whom are big now, sing of Jesus Christ. We have been helping five different orphanages. Indeed we are their fathers and their mothers.

Just to watch Mr. John Stormer, author of *None Dare Call It Treason*, pick up these little orphans in his arms, as we have done, and go with us through their little dwelling places, see the Scripture verses on the wall, hear them sing and sing of Jesus, "The Lily of the Valley," "I Love to Tell the Story"—all of this is to the praise of God. These orphans have little hearts that can love. They love us. They love me and they love you. I can report that

they are in the best of hands. Our directors and superintendents are giving them the Word of God every day, teaching them order and discipline, and they are going out and will go out to become real lights for our Saviour.

At Taegu I saw one little one that had just been brought in from the police department. Her eyes were deep-set; her little legs were thin; her knees were knotty; her fingers had very little flesh—but now she has a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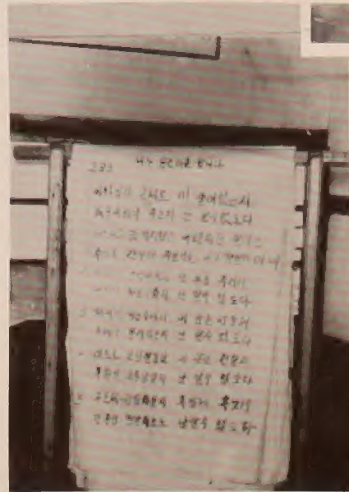
There are 28 chaplains in the Armed Forces whom we now support, and they have given me a full, detailed report. These men are preaching every Lord's Day to thousands of the men in the ROK Army, and they preach the Gospel which we are defending and proclaiming. At the airport one from headquarters was just here and he presented me an album outlining their work. Twenty thousand soldiers have now been shipped to Saigon and one of the chaplains in charge there in Saigon is one whom we have been supporting. These are men, beloved, who withdrew from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y had their support cut off by the Presbyterians who were backing them. We picked up their support and have been paying them ever since 1959. Praise God for this ministry of the Word of God! There are going to be thousands and thousands of Koreans in Heaven when we get there because of our broadcast.

Everywhere we went the people gathered in crowds to greet us and to see us. Every night we spoke to filled houses. They all know that we get nothing out of this except the joy of helping. Just now at the airport the leaders of the different theological seminaries were all there, five of them, and then the different church groups, all of which have broken away from the ecumenical movement. They gave up money, buildings; they had to fight the missionaries. These nationals have taken their stand at great cost, but God has blessed their souls, and their faces are filled with the joy and peace that comes from only the Spirit of God. Here are the Holiness; the Baptists — a big sign, "Th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elcomes Dr. McIntire"; the Methodists; the Independents; the Church of God; and then so many different Presbyterian groups. All these are i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nd the churches are growing and expanding. There is a marvelous spirit of evangelism among them. There is freedom in South Korea and these men are going everywhere.

We now support an entire leper colony, and I was able to learn a great deal more about the whole leper situation. As a new project we are taking on the support of another orphanage filled with what they call leper orphans. In the Pusan area where we were this morning there are 100,000 lepers; only 10,000 are in places where they are being cared for, and 90,000 of them are out, begging, begging. Children of lepers are not permitted to live with their parents, and when a parent becomes a leper the children are sent to orphanages, and here it is that Christians are seeking to bring the Gospel and to help. I talked to the pastor this morning. He is with a group that serves some 17 leper churches and even these poor, poor lepers tithe and give gifts of



Orphans and leaders welcome Americans at International Airport.



Left, the newest orphan, brought in from the streets by police, is welcomed by Dr. McIntire.

Above, Gospel song "hymnal."

Above, right, chart of orphans' daily time schedule.

ROK army chaplains and other Korean leaders at banquet table.

thanksgiving. This morning we heard the church bells at 4.30; at five they come by the hundreds into their churches for their great prayer meetings. As long as there is the Bible, men are going to find Christ and believe and turn away from this world with its death. Beloved, there is a reason why the Bible is under assault today. There is a reason why the Bible is being put out of our schools. There is a reason.

As I leave Korea this time I am filled with the desire to make this the greatest Christmas that we have ever had—the greatest Christmas offering that we have ever given to Christ.

Time is so short, and little, except what we do just for Christ, counts any more. Communism hangs over this land, a constant threat and a dark shadow. It was down in Pusan the last time I was here that I saw the signs painted everywhere, "Beware of Communists." They are still there. This afternoon as we entered the airport there was the great sign again, "Beware of Communists." As we passed the great central station we saw the words above the entrance, "Beware of Communists." This country is alert to these spies and infiltrators.

Oh, that America would wake up and realize the peril that we face! I knew that, if I came back to Korea to make a survey and bring back a report, I would be challenged and inspired. I am, as never before, and I want to appeal to you, my friend, to help us now in the greatest Christmas ingather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we have ever seen.

This has been a strenuous trip, and I have caught a cold — something I very seldom have. Now Mr. Stormer and I move into Saigon. Our plane will land in Hong Kong and I shall be reporting that. In view of all these developments, the increased needs which we see here, which are a heavy burden, we are going to ask this Christmas for twice the amount we have asked before — \$200,000. God has it and God can give it to us through you and all who listen to our broadcast.

There were two interesting developments. First is the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47 to 47 with 20 abstentions on the vote on Red China. Everyone is disturbed. But I told the people in our meetings th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ad been in favor of Red China now for years, and had helped the cause of Red China in the UN vote. The second development was the announcement that Dr. Eugene Carson Blake is a candidate for the general secretaryship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 replace Dr. W. A. Visser 't Hooft, and that the Russian Orthodox Church leaders are most enthusiastic about his receiving this appointment. Many Presbyterian missionaries are here, and they are all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Dr. Blake, as everybody knows, is the leading Presbyterian in the United States and throughout the world today. The fact that the Russians want him, are enthusiastic about him, is of great assistance to these Christians here who have separated from the World Council at such great cost. This confirms the stand which they have taken in regard to the liberal ecumenical church leaders. The faith is being preserved in Korea, the true Bible faith.



Yet Inter-Church Aid and Church World Service, which Dr. Blake has had so much to do with, are pouring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and all manner of relief into Korea to buy the churches. They are holding the ecumenical movement together by American relief goods, and those who turn away from the ecumenical movement remember the words of our Lord,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The last thing we did before coming to the airport was to visit th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These Baptists left because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They have no missionaries; they have about 100 churches. Here are men of God who out of conviction are standing that they might preserve and maintain a witness true to the Bible.

My friend, we must help them. We have an obligation to help them. God is calling us to help them, and we shall do it by His grace. Our broadcast is in great need. Never was it in greater need, but we are going to make the Christmas appeal straighter and stronger than ever. There is no other thing for us to do! The Bible says, "Ye have not because ye ask not," so we come asking now for \$200,000 for Christmas, a gift from us to the Saviour. The effectiveness of these gifts, the way they have been multiplied and the movement itself expanded since 1959, is evidence of God's eternal favor upon it.

Let us give today. Mr. John Stormer joins me in this appeal.

Mr. Stormer just said, "They make the money go a lot further out here than it ever does in the United States." He and I have just looked over 100 pictures which were taken in these last few days. I shall share some of them with you.

Is it not a marvelous blessing to believe that Christ was born of a virgin, that He died for our sins and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that He is coming soon? These Koreans believe it, too, and together we shall celebrate Christmas. Give, my friend. Give largely, give sacrificially, give now!

Yours faithfully,

Eugene Carson Blake

P.S.—The enclosed envelope is for your gift.

